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저 / 다산 북스

청구기호 373 박53ㅇ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은 바로 그 책!
“내 공부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하나 없는 깡촌 시골마을에서

내가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에 동시 합격한 비결

2015년 2월 출간되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서점 청소년 분야 스테디셀러 1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책이 있다. 대한민국 최고 수재들의 집합소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복 독(이 책 한 권을 닳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한다고 하여 화제가 된 책, 강남 엄마들이 5권씩 사서 아이 손닿는 곳곳마다 놓아둔다는 바로 그 책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다

책 속에서 만나는 글

죽집게 같은 공부법을 전하는 것도 아닌 이 책이 그토록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며 10만 청소년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공부의 본질’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아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과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성적을 올릴 수 없으리라 단언한다. 학원 하나 없는 전라남도 시골마을에서 자랐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로지 ‘마음가짐’ 하나로 원하는 대학 모두에 합격한 자신의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부하라 다그치지 않아도 저절로 책상 앞에 앉게 되는 마법 같은 문장들!

01

꿀 발리놓은
보약처럼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전혀 잔소리
같지 않게!

02

따박따박
논리정연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눈물!

03

내공과 깊이가
뚝뚝 묻어나면서도

츰츰하고
속 시원한
해법!

전교 1등이 읽어도, 전교 꼴지가 읽어도
“공부하고 싶어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내 아이의 첫 미래교육
임지은 저 / 미디어숲
청구기호 598.1 임73ㄴ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 미래를 내다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부모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판이 바뀐다. 변화를 빠르게 읽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부모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잊고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저마다 다른 빛깔로 빛나는 아이들을 떡시루에 넣어 찌고 네모나게 자르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기술의 발달로 각종 디지털 기기와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책 속에서 만나는 글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미래 변화는 예상할 수 없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기 전까지 누구도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유망직업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는 직업조차 없었다.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도 마찬가지다. 요즘 초등학교 희망직업 1위는 유튜브비다. '갯튜브'라 불리는 유튜브는 기존의 미디어 생태계, 검색시장, 미디어 소비 행태 등 많은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발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빠르게 구현해 낸다. 옛그제 일본 머스크가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를 열었다더니 오늘은 하늘에 택시길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만큼 뜨고 지는 산업, 기업도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구글처럼 철충성 같은 기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2020년에 맞닥뜨린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

다.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화상회의... 낯선 모습이 어느 날 일상에 파고들었다. 유통, 금융, 교육, 산업과 일자리,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전 BC(Before Corona)와 후 AC(After Corona)로 규정될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적응하는 이가 살아남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초연결 켜안은 진작 뿌려져 있었다. 초연결은 센서, 컴퓨터, 로봇과 같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촘촘히 연결된 것을 말한다. 초지능은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진 상태다. 스피커는 지능을 얻었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과 집안 전자기기들은 연결됐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이미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며, 디지털 기기의 수는 전 세계 인구수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초융합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일찌감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고 스마트팩토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기존 공장에 ICT(정보통신기술)를 결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작업 명령을 내린다.

배틀런과 원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는 공

“아이들은 기술을 활용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 수백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학창 시절 배우고 나중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면서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 각자가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찾도록 돕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줘야 한다. 이미 ‘적절하다고 공인’되거나 ‘유의미한’ 문제로 가득 찬 교과서는 필요 없다.”

다양한 영역을 재결합, 재조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협업을 해야 하는데 협업은 인성이 중요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과 협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지 않나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혁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개개인의 특징점을 살려 협업하는 인재가 돼야 해요.”



공부의 미래

구본권 저 / 한겨레출판

청구기호 374.4 구45ㄱ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
미래를 내다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부모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판이 바뀐다. 변화를 빠르게 읽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부모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잊고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저마다 다른 빛깔로 빛나는 아이들을 떡시루에 넣어 찌고 네모나게 자르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기술의 발달로 각종 디지털 기기와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책 속에서 만나는 글

p. 22) 기계번역 시대에도 번역의 결과물을 판단하는 외국어 실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발달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의 미묘한 어감 차이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 말하는 상황의 분위기까지 기계가 번역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번역에 ‘피리 부는 사나이’를 입력하면 ‘Piribu is a man’이라고 번역됩니다.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기계번역은 여러 개의 번역을 제시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번역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Piribu is a man’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미래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_ <그래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p. 33)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을 포함시킨 목적은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진짜 목적은 코딩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코딩 교육은 교과서와 이론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명령을 내려 작동시켜보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볼 수 있는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즉 코딩교육은 편리한 디지털 도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활용해보는 체험학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_ <코딩을 배우는 진짜 이유>

P. 173) 2016년 구글은 사내에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뛰어난 팀을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최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A팀, 최고가 아닌 팀원들로 구성된 B팀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B팀들이 A팀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고 생산성 높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팀들은 공통적으로 평등, 관대함, 동료 팀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공감 능력을 갖추었고,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왕따’ 문화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평균의 종말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THE END OF AVERAGE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토드 로즈가 발견한 '개개인성'의 힘

평균적인 인간이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대!



21세기교육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저 / 21세기 북스

청구기호 182.1 로78ㅍ

아마존닷컴 최고의 책 - TED 화제의 강연

숨겨진 재능을 찾는 교육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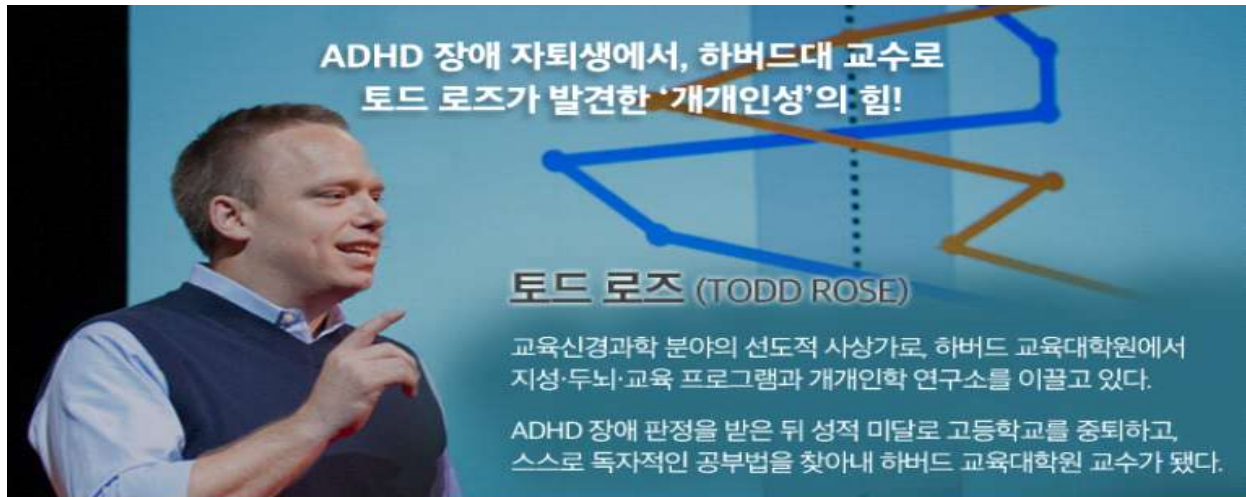
평균주의가 망친 교육을 다시 설계하라!!

“게으름뱅이, 문제아, 한심한 녀석.”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토드 로즈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다. 믿기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성적 미달과 ADHD 장애로 학교를 중퇴했다. 평생 골칫덩이 취급만 받던 토드 로즈가 인생 반전을 맞이한 건,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해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학교 제도 속의 ‘문제아’였던 토드 로즈는,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통해 ‘평균’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한다.

추천평



4차산업혁명 시대!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와 학교가 키우는 인재는
어째서 이토록 다른가?

평균은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웠을 때 산출 가능하다.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들을 무시하고 달리기 하나로만 줄 세운다면, 우리 교육은 수많은 김연아와 박태환을 놓칠 것이다. 91점이 붙고 100점이 떨어지는 것을 불공정으로만 보는 프레임에 반격을 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책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토드 로즈는 결국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외친다.

- 이해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저자)

『평균의 종말』은 철학책이다. ‘국·영·수 문제를 골고루 잘 푸는’ 학생을 명문대로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의 효능을 의심하는가? 이 책이 견고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가 교과서를 검열하고(‘검정’ 교과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간표를 나눠 주는 게 당연시되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토드 로즈의 외침은 거센 죽비와 같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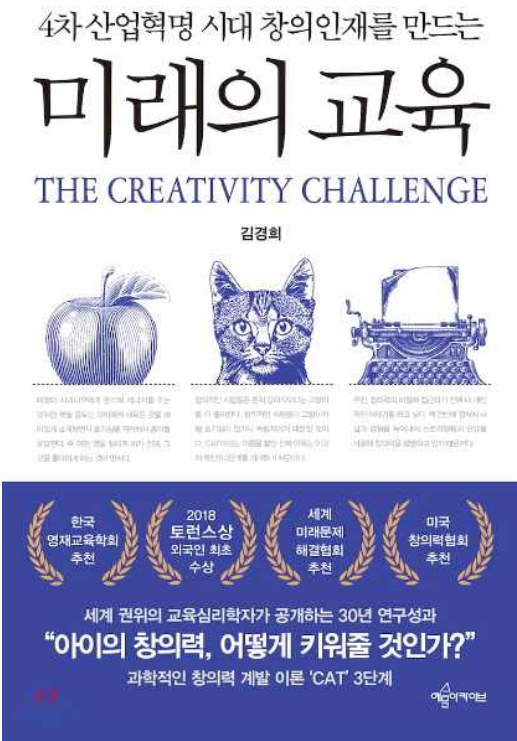
- 이범 (교육평론가)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인재를 만드는

미래의 교육

THE CREATIVITY CHALLENGE

김경희



세계 권위의 교육심리학자가 공개하는 30년 연구성과
“아이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과학적인 창의력 개발 이론 'CAT' 3단계

예문아카이브

미래의 교육

김경희 저 / 예문아카이브

청구기호 370.185김14□

세계 권위의 교육심리학자가 공개하는 30년 연구성과

“아이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2018 토런스상 외국인 최초 수상

미국 창의력협회 추천 세계 미래문제해결협회 추천

아이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창의력’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 『미래의 교육(원제: The Creativity Challenge)』이 마침내 나왔다. 30년 동안 ‘창의력’ 분야를 연구해온 윌리엄메리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이 책에서 창의인재를 만드는 ‘CAT(갯) 이론’을 공개한다. 아이에게 창의적 풍토(Climate)를 조성해주면 창의적 태도(Attitude)를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Thinking skill)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책 속에서 만나는 글

30년의 연구를 통해 완성한 창의력 계발 이론 ‘CAT’ 공개!

1단계: 풍토(Climate) 조성하기

2단계: 태도(Attitude) 기르기

3단계: 사고(Thinking skill) 적용하기

p. 56) 창의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작물이나 창작자보다는 ‘창의적 풍토’다. 다행히 풍토는 부모와 교육자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내가 “환경”이라는 말 대신에 “풍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 외부 환경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풍토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장소, 시간 등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환경 및 상태를 모두 아우른다. 풍토는 개인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촉진하는 창의적 잠재력을 살리는 것을 비롯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2장: 어떻게 탁월한 혁신을 이루는가」 중에서

p. 357) 동양 교육이 획일화된 정답을 가르치면서 아이가 남의 말만 듣도록 하는 반면에 유대 교육은 질문과 반문으로 다양한 해답을 찾으면서 아이가 토론하게 한다. 동양 교육은 아이에게 시험을 대비해서 책을 읽게 만든다. 하지만, 유대 교육은 어른이 스스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저절로 책을 읽고 싶어 만든다.

---「제8장: 유대인은 정말로 창의적인가」 중에서